

유가 쇼크에 전기차 수요 급증 기아 내수·테슬라 수입차 '1위'

기아 현대차 제치고 28년만에 정상
전동화 모델 1만3935대 판매
테슬라 수입차 절반 가까이 차지
모델Y 프리미엄 9328대 팔려

중동 전쟁에 따른 유가 급등으로 국내 자동차 시장이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특히 국내 완성차 업계에서는 기아가 수입차 업계에서는 미국 전기차 브랜드 테슬라가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유지하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7일 업계에 따르면 기아는 지난달 내수 시장에서 내연기관과 친환경차의 고른 판매 상승에 힘입어 28년 만에 처음으로 현대차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다. 기아의 내수 1위 비결은 세단부터 스포츠유틸리티차(SUV), 경승용차, 목적기반차량(PBV)에 이르는 라인업을 확보한 덕분이다.

이를 바탕으로 기아는 지난 4월 국내 시장에서 전년 동월 대비 7.9% 성장한 5만5045대를 판매했다. 전동화 모델은 전년 동월 대비 131.3% 증가한 1만3935대를 판매했다. 반면 현대차는 같은 기간 5745대 판매에 그쳤다.

기아는 올해 들어 매월 전기차를 1만대 이상 판매하며 전동화 시장 내 입지를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 월별 추이를



기아 EV3.

보면 1월 3628대(전년 대비 483.3% 증가)를 시작으로 2월 1만4488대(210.5%), 3월 1만6187대(148.6%), 4월 1만3935대(131.3%)로 높은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다. 단순한 물량 증가를 넘어 차급별 모델들이 시장에 고르게 안착하며 수요 기반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수입차 업계에서는 전기차만 판매하는 테슬라가 1위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테슬라는 지난달 1만3190대를 판매하며 전체 수입차 판매량(3만3993대)의 절반 가까운 수치를 기록했다. 베스트셀링 모델인 모델Y 프리미엄은 단일 트림 기준 9328대가 팔렸는데, 이는 2위 모델3 프리미엄 롱레인지(1481대)의 6.3배에 달하는 수치다. 전통 강자 BMW 520(1191대)의 약 8배 수준이다.

이 같은 현상은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있다. 지난달 국내 판매된 수입차의 연료별 판매량은 전기차 1만8319대(53.9%)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하이브리드 1만2777대(37.6%), 가솔린 2734대(8.0%), 디젤 163대(0.5%) 순으로 나타났다. 불과 1년 전(2025년 4월·3712대, 17.3%)과 비교하면 393.5% 급증한 수치다. 수입차 시장이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정운영 KAIDA 부회장은 "4월 수입 승용차 신규 등록은 브랜드별 등락이 혼재했으나 전기차 판매 호조와 일부 브랜드의 신차 효과 등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metro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상생 지원 확대

금융·기술·인재·ESG 전방위 지원

LG에너지솔루션이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확대한다. 금융 지원부터 기술 보호, 인재 확보,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대응까지 협력사 경영 전반을 지원해 배터리 산업 생태계 경쟁력을 높여겠다는 계획이다.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6일 충북 오창에너지플랜트에서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동찬 폴 대표이사, 김우섭 LG에너지솔루션 커뮤니케이션센터장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반성장 파트너십 협약식'을 열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LG에너지솔루션과 협력사가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준수하고 상호 협력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LG에너지솔루션은 협력사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지원, 기술보호지원, 인력채용지원, 경영안정화 지원 등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협력사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안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저리 자금 대출 지원, 신용보증서 발급 절차 간소화, 대금결제 정보의 투명한 관리 체계 구축 등을 확대한다.

기술 분야에서는 협력사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을 제3의 신뢰기관에 보관하는 기술자료 임치제를 도입해 기술 보호를 지원한다.

/원관희 기자

기아 셀토스, 인도 '올해의 SUV'

현지 흥행몰이로 누적 4만대 판매

타임스 드라이브 어워즈 수상
BNCAP 별 5개로 안전성 인정
출시 후 누적 4만2554대 판매

기아의 인도 시장 판매량을 견인하고 있는 소형 스포츠유틸리티차(SUV)가 현지 흥행몰이에 이어 기술적 경쟁력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기아는 5일(현지 시간) 인도 타임스 그룹 산하 자동차·모빌리티 전문 매체 '타임스 드라이브'가 주관한 '2026 타임스 드라이브 오토 서밋&어워즈'에서 디올 뉴 셀토스가 올해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에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2026 타임스 드라이브 오토 서밋&어워즈는 자동차 전문 기자와 인플루언서 등으로 구성된 평가단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도에서 판매된 차량을 대상으로 디자인·퍼포먼스·기술·안전성·지속가능성 등을 종합 평가해 수상 모델을 선정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수상은 디자인·기술·실용성을 균형있게 갖춘 차량을 제공하기 위한 기아의 지속적인 노력이 반영된 결과"라며 "셀토스는 빠르게 성장하는 인도 시장에서 기아의 입지를 강화하는 핵심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기아가 올해 1월 출시한 디올 뉴 셀



기아 디올 뉴 셀토스.

토스는 정통 SUV 스타일에 미래지향적인 디자인 요소를 더해 강인하면서도 세련된 이미지를 구현했다. K3 플랫폼을 기반으로 승차감과 서스펜션 성능, 소음·진동(NVH) 제어 수준을 대폭 개선해 한층 부드럽고 정제된 주행 경험을 제공한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인도 신차 안전도 평가 프로그램인 BNCAP(Bharat NCAP)에서 성인 탑승자 보호 31.70점(만점 32점), 어린이 탑승자 보호 45.00점(만점 49점) 등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별 5개를 획득했다. 이는 인도에서 출시된 내연기관 SUV 가운데 최고 수준의 안전 성적이다.

디올 뉴 셀토스는 올해 1월 인도 출시 이후 월평균 1만 대 이상의 판매를 꾸준히 기록하며 지금까지 누적 4만2554대를 달성하는 등 현지 고객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metro

HD현대일렉트릭, 북미 전력망 시장 공략

美 전력기기 전시회서 1730억 계약
765kV 변압기·리액터 공급 수주

HD현대일렉트릭이 북미 최대 전력기기 전시회에서 초고압 전력 설비 수주와 차세대 제품 로드맵을 함께 공개하며 현지 전력 인프라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다. 노후 전력망 교체와 재생에너지 연계 송전망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송전부터 배전까지 아우르는 제품 라인업을 앞세워 북미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달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시카고 맥코믹 플레이스에서 열린 북미 최대 전력 산업 전시회 'IE EE PES T&D Conference & Exposition 2026'에 참가했다고 7일 밝혔다. 2년마다 열리는 이번 행사에는 ABB, 지멘스 에너지, 히타치 에너지 등 글로벌 주요 전력기기 기업들을 포함해 약 900개에

너지 기업이 참여했다.

HD현대일렉트릭은 행사 현장에서 미국 중부 권역 대형 유틸리티 회사와 총 1730억원 규모의 765kV 초고압 변압기 및 리액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미국 중남부 송전망 구축 계획인 'SPP 장기 송전 마스터 플랜'의 핵심 사업인 765kV 백본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됐다.

SPP 권역은 미국 내 최대 풍력 발전 밀집 지역으로 꼽힌다. 재생에너지 발전 확대와 함께 초고압 송전 인프라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 핵심 시장이다. HD현대일렉트릭은 이번 수주를 계기로 북미 초고압 송전 설비 시장에서 입지를 넓히고 추가 프로젝트 수주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시 현장에서는 차세대 기술 방향성을 담은 '2030 로드맵'도 제시했다.

/원관희 기자 wkh@

고려아연, 매출·영업익 분기 '최대 실적'

귀금속·핵심광물 판매 호조가 견인

고려아연이 원자재 가격 급등과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악재 속에서도 올해 1분기 사상 최대 분기 실적을 달성했다. 동시에 105분기 연속 영업흑자라는 기록도 이어갔다.

고려아연은 6일 공시를 통해 연결 기준 1분기 매출 6조720억 원, 영업이익 7461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각각 58.4%, 175.2% 증가한 수치로,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다. 영업이익률도 12.3%로 전년보다 5.2%포인트 상승하며 수익성이 크게 개선됐다.

이 같은 실적은 금·은 등 귀금속 수요 증가와 안티모니 등 핵심광물 판매 호조, 안정적인 생산 기반 유지가 뒷받침된 결과로 풀이된다. 특히 최윤범 회장이 주도하는 신재생에너지, 이차전지 소재, 자원순환을 축으로 한 '트로이카 드라이브' 전략이 본격적으로 수익에

기여하기 시작한 점도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고려아연은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해 미국 정부 등과 함께 총 74억달러(약 11조원)를 투자해 추진하는 현지 통합 제련소 건설 사업인 '프로젝트 크루서블'도 속도를 높이고 있다. 프로젝트 크루서블은 미국 테네시주에 핵심광물 11종을 포함한 비철금속 13종과 반도체 황산 등을 생산하는 통합 제련소를 짓는 사업으로, 한미간 경제파트너십 강화와 글로벌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허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고려아연은 주당 5000원의 분기 배당을 결정하고 자사주 소각을 통해 주주환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고려아연 관계자는 "갑작스러운 전쟁 발발과 원자재 공급망 악화에 다양한 제품 포트폴리오와 안정적인 신사업 성과 등으로 최대 분기 실적을 낼 수 있었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LG화학, 초박막 필름 소재 '유니커블' 공개

세계 최대 포장 전시회 인터팩 참가

LG화학이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세계 최대 포장 산업 전시회에서 친환경 패키징 소재 기술을 선보이며 글로벌 고객 확대에 나선다.

LG화학은 7일부터 7일간 독일 뒤셀도르프에서 열리는 '인터팩 2026'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인터팩은 식품·제약·화장품 등 소비재 패키징부터 포장·가공설비까지 포장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유럽 최대 규모의 전문 전시회다. 올해는 약 60개국 2500여개 기업이 참가한다.

LG화학은 이번 전시회에서 '소재에서 시작되는 패키징 혁신'을 주제로 초박막 포장필름 소재인 '유니커블(UNIQUABLE™)'을 소개한다. 유니커블은 단일소재 기준 세계 최고 수준인 14μm(마이크로미터) 두께를 구현한 포장필

름 소재로 동일한 물성을 유지하면서 최대 12μm까지 두께를 줄인 샘플도 함께 선보인다.

유니커블은 식품, 펫푸드, 생활용품 등 소비재 포장재에 적용할 수 있는 패키징 솔루션이다. 고객이 요구하는 포장 조건에 맞춰 가공성, 강도, 실링 안정성, 수분 차단성 등을 소재 단계에서 설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단일 폴리에틸렌(PE) 소재를 기반으로 해 재활용성을 높이면서도 기존 복합재질 포장 필름과 유사한 수준의 물성을 확보했다.

일반적으로 단일소재는 재활용이 쉽지만 물성 확보를 위해 두께가 두꺼워지는 한계가 있다. LG화학은 소재 두께를 줄이는 다운게이징 기술을 적용해 경량화와 기능성을 동시에 구현했다.

/원관희 기자